

원·달러 환율 상하방 요인 충돌 전문가들 “당분간 박스권 흐름”

중동지역 종전 기대·日 환율 개입
美 연준 긴축 전망 등 복합적 작용
“대외변수 흐름에 영향 받는 장세”

원·달러 환율의 성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 일본 당국의 환율 개입 등 원화값 상승 요인이 있지만, 미국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긴축 전망 등 하방 요인도 분명해졌다.

28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65.1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과 비교해 7.6원 올랐다. 지난 연휴 동안의 역외환율은 미국이 이란이 제시한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1390원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미국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시금 하락한 모습이다.

◆ 호르무즈 재개방 기대 ‘상방요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원화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원유의 약 70%를 중동산 두바이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이 최근 제시한 휴전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다음날인 27일에는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선회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이란은 협의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다. 1년 전이었다면 우리가 동의했을 법한 내용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패를 지나치게 크게 본다”라며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SOL메이트 유엔대응신탁 11월까지 고객감사 이벤트

누적 잔고 1조 5000억 돌파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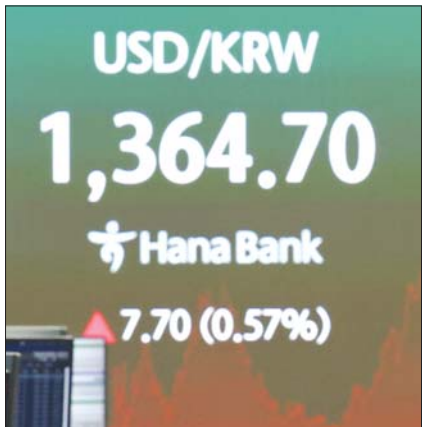
신한은행은 유엔대응신탁 누적 잔고 1조 5000억원 돌파를 기념해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비스 기업 스웬과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신한 SOL메이트 유엔대응신탁’ 신규 가입 고객 선착순 600명과 기존 일반계약 고객 전원에게 스웬의 ‘얼라이브(alive)’ 스토리 기록 이용권을 제공한다. ‘얼라이브’는 사진과 음성 편지, 영상 등을 개인별 스토리 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업을 통해 유엔대응신탁의 자산 상속·승계 기능에 더해 고객의 기억과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유엔대응신탁에 보내주시는 고객들의 관심과 신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주기와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신탁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28일 원·달러 환율은 7.6원 오른 1365.1원 마감했다. /뉴시스

일본 외환당국의 환율 개입도 원화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일본과 산업 및 수출구조가 유사한 만큼 원화값은 지역 기축통화인 엔화를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행은 이달 17~18일 양일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5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코트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양국 재무 수장은 엔화 약세가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환율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라며 미·일 환율 공조 가능성도 제시했다.

◆ 美 긴축 우려 ‘하방요인’

‘중동사태’의 종전 기대감과 엔화값 상승에 대한 경계가 원화값을 끌어 올리는 가운데, 미국 국제금리의 급등이 원화값의 상승폭을 제한했다. 미국 국제금리가 상승하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 국제금리의 상승은 원화값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전망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미국 국제금리를 비롯한 주요국 국제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미 10년물 금리는 5.2%까지 상승했고, 30년물 금리는 5.5%까지 치솟아 지난 2004년 6월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전망도 원화값의 하방 요인이다. 미 연준은 지난 15~16일(현지시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의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 전문가들 “변동성 유의해야”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은 박스권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환율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모두 대외변수인 만큼, 변동성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따른 유가 추이, 미국 채금리 추가 상승 여부, 엔화 흐름 등 다양한 불확실성 변수로 달러값은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원·달러 환율은 월말 배당금 액송금 수요 등 수급요인보다는 대외 변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재용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 하락과 일본의 시장개입 경계감이 원화 환율의 하락 흐름으로 작용했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 경계감 등은 환율 하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iM금융그룹, 차기회장 선임 절차 돌입

회추위, 톱리스트 인원수 공개 예정

iM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iM금융지주 회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최고경영자 선임에 관한 경영 승계 절차에 돌입했다.

iM금융 회추위는 최고경영자 선임 원칙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후보군 구성의 다양성과 평가의 공정성 제고 ▲자질과 역량을 갖춘 최종후보자 선정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iM금융 회추위는 사전에 공개한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에 따라 내외부 상시 후보군을 관리해 왔다. 내부 후보군은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육성 및 관리했으며, 외부 후보군은 복수의 전문 서치기관을 활용해 폭넓게 발굴해 후보군 구성의 다양성을 대폭 높였다.

iM금융 회추위는 이번 승계 절차에서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내외부 후보자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 출신이나 현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원칙에 따라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검증할 예정이다.

후보자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추위의 역할도 강화한다. 숏



대구 iM뱅크 제2본점 전경. /iM금융

리스트 및 최종후보 선정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영철학, 그룹의 미래 비전, 리더십과 경영역량 등을 평가하며, 회추위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직접 검증해 최종후보자 추천까지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또한 iM금융지주 회추위는 경영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톱리스트 인원을 공개할 예정이며,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숏리스트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조강래 iM금융지주 회추위원장은 “이번 승계 절차는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내외부 후보자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충분한 검증 기간과 투명한 평가를 통해 회추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28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을 방문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이형일 부총리·신현송 총재 회동 금융안정 등 ‘소통·협력’ 뜻 모아

외환·자산시장 위험요인 조기 대응
원화 국제화 등 중장기 과제 공조 확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외환·자산시장을 함께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과 원화 국제화 등 중장기 과제에서도 공조를 확대한다.

28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이 부총리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을 방문해 신 총재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취임한 이 부총리가 취임 6일 만에 한을 찾은 것이다.

이번 회동은 금융시장 변동성과 대외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커지면서 재정·통화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양측의 공감에 따라 마련됐다. 재경부에서는 차관보와 국제경제관리관, 경제정책국장이, 한에서는 부총재와 부총재보, 조시국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와 신 총재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성장세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국내에서도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외환·부동산시장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진 점에도 주목했다. 거시경제지표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부총리는 물가·성장·금융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화로운 경제·통화정책 운용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외환·자산시장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화 국제화와 디지털금융 등 미래 과제도 함께 다룬다. 양측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신 총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물가·금융 안정을 통한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재경부와 한은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시장상황점검회의 등 기존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 소통과 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시스템 개편

내달 5일 0~8시 일부 금융서비스 제한

오는 10월 5일 새벽 8시간 동안 대출과 비대면 계좌개설 등 일부 금융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 시스템 개편에 따라 10월 5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일반신용정보 처리가 필요한 일부 금융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고 28일 밝혔다.

중단되는 서비스는 대출·리스·할부·신용카드·카드론 등 여신상품의 신규·갱신·연장과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예금계좌비대면 개설 등이다. 금융성·이행성 보증상품의 신규·갱신·연장과 본인신용정보 열람 및 확인서 출력도 제한된다. 다만 계좌이체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및 현금서비스, 신용·체크카드 결제 등 일반신용정보 처리와 무관한 금융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은 해당 시간대 대출이나 계좌개설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예

정인 금융소비자에게 사전에 업무를 처리하거나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오전 8시 이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일반신용정보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금융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대출·연체 등의 신용정보를 집중·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2016년 시스템 출범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차세대 사업이다. 신용정보원은 2021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시작으로 시스템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보험·기술신용정보 시스템을 지난 2월 먼저 개편한 데 이어 일반신용정보 시스템을 마지막 단계로 전환한다.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최신 기술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안체계도 강화해 신용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